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뵤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운동

† 발행인: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신년메시지

바로 그 시간, 2012년

삶의 페이지를 또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란 신비에 다시 한 번 빠져듭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 가운데 태어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빌릴 수도, 고용할 수도, 구매할 수도,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철저히 대체 불가능합니다. 알루미늄은 구리로, 육체노동은 지식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은 공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우리 곁을 지나고 있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깁시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2년도는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 가운데 모든 역사는 이뤄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시간 안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때가 차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when the time has fully come) 우리 주님이 오셨으며, 바로 그 때가 찬, 그 시간에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201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때가 찬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기도와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로 맺어지는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교회에서 2012년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Happy New Year.

담임목사 박 노 철

신년대담

2012년, 아름다운 성장과 열매를 기대하며

순례자는 2012년을 맞아 박노철 담임 목사님과 신년 대담을 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을 김민철 집사가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먼저 서울교회 2대 담임목사님이 되신 것을 은교인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위임식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찬송은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2009년 8월에 서울교회에 왔으니 벌써 햇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지나 온 발걸음을 돌이켜보니 정말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고 있었는데 벌써 위임식이 끝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서울교회는 한 마디로 어떠한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교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이신 이종윤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서울교회처럼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 뒤를 잇는 저에게는 교회의 하나 됨, 성도님들의 순종, 세계와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다음은 원로 목사님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3. 스무 살 청년으로 성장한 서울교회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땅을 기경하시고 씨를 뿌리셨다면, 저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

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원로 목사님이 열심히 뿌려놓으신 씨앗들에 최선을 다해 물을 준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장과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4. 올해 새롭게 계획하시는 사역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교회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 1/2부에 부서 전담 교역자들을 청빙하여 임명을 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훌륭한 교역자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21세기에 대처함에 위치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교육의 1번지라고 하는 이곳에서 서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회 교육을 제일 잘하는 교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더로 쓰임 받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는 투자를 할 생각합니다.

5. 평소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는데 가까이에서 보신 서울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유난히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미소는 영혼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모습, 말씀의 종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6. 최근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제목이 있으신가요?

-제가 왼쪽 귀 메니에르로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사역들을 건강의 무리 없이 감당한 것은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 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심령을 찢는 회개의 역사와 하늘에서 임하는 위로와 치유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가 지금의 모습처럼 언제나 하나 된 모습으로 의와 평강과 화락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실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 영원무궁한 복을 또한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아름다운 축복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2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복규 장로 (당회서기)

새로운 20년사를 쓰는 원년에 박노철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당회장으로 모시게 된 것 주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목회 정책을 잘 펼치시도록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의 각 기관들의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며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서울교회에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

가도록 하여 교회가 더욱 더 든든히 세워지는데 당회원들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의 다른 교회들에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섬겨 나갈 때에 서울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당회원 모두는 착한 행실로 앞장서서, 온 교회의 본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균형과 조화 있는 발전을 위해



오정수 장로 (기획위원장)

2012년은 서울교회가 새 시대로 도약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제2세대를 맞는 서울교회가 앞으로 잘 나아가도록 준비하고 정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필하고,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주신 사

명, 곧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역할을 여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한편, 서울교회가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모든 부서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부터 왔으니...



김광신 장로(재정위원장)

모든 것의 시작을, 아니 시작부터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바

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므로 주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며 받은바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정성을 인하여 서울교회의 교육과 구제,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교육의 한차원 업그레이드



홍성주 장로(교육위원장)

스무살 청년이 된 서울교회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니며 어찌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교육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up-grade)하고 한국교회교육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24개 교회학교를 지도하시는 전담 교역자들, 500여명에 달하는 교사들,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에 달라지는 사항들입니다.

1. 교회학교 모든 부서에 전담 교역자를 배치하여 각 부서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활동과 소그룹활동을 장려합니다.
2. 장년부 공부는 김철홍 목사님(장신대 교수)을 모시고 1부예배 후에 본당 2층에서 합반으로 모여 수준 높은 성경공부를 하게 됩니다.
3. 부서별로 새가족반을 편성하여 전담교역자가 4주과정을 교육한 후 등록인 고유번호를 부여토록 합니다.
4. 교사양성반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 기자재를 구비하여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신용식 장로(선교위원장)

2012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전 세계를 주님의 제자로 삼고자 선교사를 발굴하고 파송 받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선교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는 우물파기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우물파기 복음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아프리카에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 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 끝까지 선교가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도 선교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과 정성을 다해 목숨 바치는 심정으로...



김대호 장로(예배위원장)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야 하며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복음적이며 개혁주의적이며 경건하고 은혜스러우며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

배는 하나님이 열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2012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납하신 아벨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한 다락방 모습에서 출발하는 서울교회의 성장



임상현 장로(교구위원장)

올해 서울교회는 16개 교구와 223개의 작은 다락방교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국 20세된 청년 서울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바로 우리 몸의 세포 같은 다락방 하나하나의 건강한 모습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올해에는 부목사님들이 교구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분담이 이루어졌고 아울러 교구장 장로들을 보좌하며 교구사역을 더 활성화 하는데 앞장 서게 될 부교구장들이 임명된 점이 예년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교구위원회에서는 새로 편성된 가족다락방 중심의 다락방모임을 통하여 교제와 전도, 그리고 구제를 위한 여러 다락방 사역들이 보다 더 실질적,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교구지도목사를 비롯한 교구일꾼들이 적극적으로 돕게 될 것이고, 아울러 연간 천여명 가까이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다락방에 확실하게 정착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서울교회의 진정한 한 가족이 되게 하는데 다락방이 그 소중한 통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

다. 또 5월의 한마음 한가족 잔치와 9월의 바자 등 교구단합행사를 통하여 교구원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가족의식을 고취하되, 특별히 예년에 교회전체를 대상으로 체육중심으로 치루어졌던 행사가 장소적, 거리적 어려움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참여종목의 한계로 일부 한정된 성도들만의 잔치로 그쳤던 아쉬움이 있어 올해에는 우선 적어도 같은 교구, 나아가 같은 목사님이 지도하는 교구에 속한 성도들만이라도 모두 함께 모여 진정한 한가족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하되 모임의 내용도 체육활동만이 아니라 각 교구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후반기에는 그동안 발간하지 못했던 교회요람을 제작하여 기존 성도들 서로간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 하에 이를 위하여 전반기에는 교적전반에 관한 정리작업을 교구지도목사님의 지도 하에 각 교구일꾼들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락방사역의 활성화, 등록새가족들의 효과적 정착, 교적정리와 교회요람제작업무 등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박정선 장로(찬양위원장)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C.S.루이스(옥스포드대 교수)는 찬양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그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645곡의 찬송가와 샘솟는 기쁨에 수록된 234곡의 하나님 찬양 곡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합창의 소리가 서울교회 곳곳에 가득차고, 영아부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즐거워 부르는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신년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청지기 수련회, 1.2(월)~1.7(토) 새벽 5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해를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연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야곱, 모세, 한나, 엘리야, 바울, 베드로와 같은 성경핵심 인물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박노철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 배우게 된다.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차게 될 것을 기도한다.

구분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5:00~5:45 (본당)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설교: 박노철 목사)					
5:50~6:20 (101호)	교구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황광 목사)	예배위원 및 찬양대의 역할과 자세 (장석남 목사/유문건 목사)	전도위원의 역할과 전도전략 (안상은 목사/배경애 전도사)	2012 전교일꾼의 자세 (박진아 목사)	섬김을 통한 교회봉사 (서명철 목사)
대상	교구위원회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전도위원회	선교위원회	기타 섬김위원

CBS - "새롭게 하소서"

박노철 목사의 CBS 인터뷰 "새롭게 하소서"가 다음과 같이 방송된다. 성도들의 많은 시청 바란다.

- 분방/1월 4일(수) 밤10시
- 재방/1월 5일(목) 새벽4시, 오전10시
- 라디오/FM 98.1Mhz/1월4일(수) 저녁8시10분

2012년 바뀌는 것들

- ◆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 착한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마5:13~16, 벰전2:11~12)
- ◆ 행동지침: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3.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운동
- 1. 2012년 경배찬송: 5장, 3부 예배 입례송: 68장으로 한다.
- 2. 순결서약식: 1월8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갖게 되며 2012년도에는 순결반지 대신 '순결서약기념품'을 받게 된다.
- 3. 장년부 통합 성경공부: 주일1부 예배 후 본당 2층

- 에서 김철홍 목사의 강의로 장년부 통합 성경공부를 실시한다.
- 4. 장년5부: '소망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603호에서 같은 시간에 자체부서활동 및 성경공부를 실시한다.
- 5. 소요리문답부 통합 성경공부 실시: 소요리문답부는 2부 예배 후 601호에서 김은수 목사의 강의로 통합 성경공부를 실시한다.
- 6. 어린이수요예배가 오후 5시에서 7시로 변경된다.
- 7. 어린이찬양예배는 Steven Martinolich 목사님과 함께 영어로 진행된다.

2012년 순결서약식

오리엔테이션, 기도회 - 1월 7일(토) 오후 3:30 - 5:30 / 503호
순결서약식 - 1월 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12년 순결서약식이 1월8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열린다.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3:3)를 주제로 거행되는 순결서약식은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 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함

이다. 대상은 13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로 결혼전까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순결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서약식'과 '순결서약기념품'이 주어진다.

빈약한 자 구제 위한 헌금

강남구청에 전달하다
12월27일(화) 오전 9시 강남구청 회의실에서

우리교회는 박노철 담임목사와 김광신, 오정수, 노문환 장로, 박광일 목사(구제위원회 지도), 구제위원장 윤봉준 장로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월 27일(화) 오전9시 강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한 헌금 일천이백만원을 전달하였다. 박노철 목사는 전달식에서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며 구청장 이하 모든 구청직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전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월 1일(주) 새문안교회 제직헌신예배 설교한다. 1월 2일(월) 평강의교회 특별새벽예배 설교한다. 한국기독교학술원 시무예배 설교한다. 1월 4일(수) 한국장로교100주년 역사사진전 준비위원회를 소집한다.
- 이사: 9교구 최명남 집사 김지은 권사 최인애 전도사 중랑구면목5동 174-54
5교구 정빈모 집사 김연정 권사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706번지 꽃뿔버들마을 진흥아파트 143동 1101호
- 주간식당 봉사: 리브가전도회(1.1) 제1스테반회(1.8)
- 금주의 식사: 나상민 권사 나기태 권사 나미용 집사 가정(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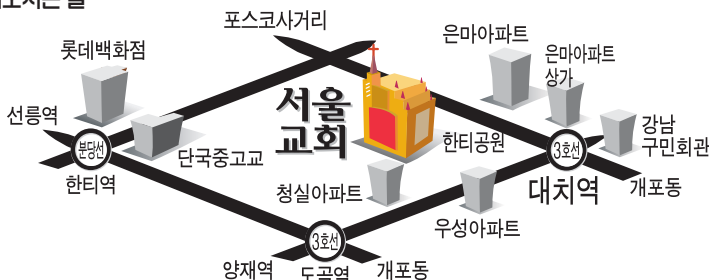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2. 신년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한해를 시작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3. 우리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끄실 6분의 신임 교역자들에게 성령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서울교회가 교육목회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